

# 추사의 제주 유배시 한글편지 쓰기과 읽기\*

윤 치 부\*\*

## 〈 목 차 〉

1. 머리말
2. 추사의 편지 쓰기
  - 2.1. 한문편지 쓰기
  - 2.2. 한글편지 쓰기
3. 제주 유배 한글편지 쓰기과 읽기
  - 3.1. 발신자
  - 3.2. 수신자
  - 3.3. 메시지
  - 3.4. 관련상황
  - 3.5. 접촉
  - 3.6. 신호체계
4. 맺음말

## 1. 머리말

〈완당전집〉만을 참고하더라도 추사 김정희가 관심을 가졌던 세계뿐만 아니라 시문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라 진흥왕의 능에 대하여(新羅眞興王陵攷)〉와 같은 논문적 성격의 글을 비롯해서 〈實事求是說〉과 같은 어떤 사실에 대해 해설한 글, 〈太

\*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11월 11일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라는 주제로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주최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極卽北極辨)과 같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쓴 글, <대사성을 사양하는 소(辭大司成疎)>와 같은 상소문, <권이재 돈인에게 주다(與權彝齋敦仁)>와 같은 편지글, <전당시서의 서(全唐詩序序)>와 같은 사물의 요지를 적은 글, <천상정重修記>와 같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글, <석파의 난권에 쓰다(題石坡蘭卷)>와 같은 책의 첫머리에 써넣는 글, <동짓날에 올리는 전(冬至進箋)>과 같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임금께 올린 글, <仁政殿銘>과 같은 훈계가 될 만한 내용을 써넣은 글, <金孝子旌閭頌>과 같은 어떤 사람의 공덕을 기리는 글, <箴妄>과 같은 훈계의 글, <伽倻山海印寺上樑文>과 같은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에 쓴 글, <夫人禮安李氏哀逝文>과 같은 제문, <가을 바람에 뉘우치는 마음이 싹트다의 논(秋風悔心萌論)>과 같은 수필적인 글, <水仙花>와 같은 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sup>21)</sup> 그만큼 다양한 글쓰기를 한 셈이다. 이 가운데 유독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글쓰기가 書牘이라는 편지글이다. <완당전집> 권3에서부터 권5에 이르기까지가 전부 한문편지글로서 그 수신자는 50여 명이나 된다.<sup>22)</sup>

그런데 <완당전집>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학계에 발굴 소개된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바로 諺簡이라는 34통의 한글편지글이다. 이러한 한글편지의 글쓰기는 일반 문인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한문편지글의 수신자가 대개 남성들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글편지글의 수신자는 거의가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개인문집이 한문이라는 신호체계를 통한 글쓰기임을 감안할 때 추사의 한글편지가 <완당전집>에 별도로 수록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완당전집>권1에는 旌·說·辨, 권2에는 疏·書牘, 권3, 4, 5에는 書牘, 권6에는 序·記·題跋, 권7에는 箋·銘·頌·箴·上樑文·祭文·雜著, 권8에는 雜識, 권9, 10에는 詩들이 수록되었는데 이러한 배열은 글의 형식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書論, 書論, 金石學, 經學, 佛敎學, 書翰文, 기타 등의 내용상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열할 수도 있을 것이다.(金正喜, 《秋史集》, 崔完秀譯, 玄岩社, 1976.)

2) 이들 수신자들로서는 형제나 친족들에 해당하는 舍仲 金命喜, 舍季 金相喜, 懋兒, 佑兒, 從兄 金教喜, 再從兄 金道喜, 從姪 金商一, 從姪 金商默, 再從孫 始濟 兄弟, 再從孫 台灣, 外舅 李義民 외에 李善在, 興宣大院君, 閔台鎬, 怡堂 趙冕鎬, 石農 李鍾愚, 汾溪 尹定鉉, 威堂 申觀浩, 雲石 趙寅永, 彝齋 權敦仁, 茶山 丁若鏞, 黃山 金道根, 圭齋 南秉哲, 穎樵 金炳學, 桐庵 沈熙淳, 甌山 金尙鉉, 兵使 張寅植, 農丈人 李在全, 吳進士, 秋琴 姜浩, 柳節端, 黃裳, 小華 洪樂有, 藕船 李尙迪, 西山 丁學淵, 東籬 金敬淵, 吳慶錫, 金奩準, 洪顯普, 曹匡振, 吳昌烈, 閣監 吳圭一, 威聖中, 汝人 李最相, 梁文駒, 月汀 李璋煜, 孟慈 汪喜孫, 白坡, 草衣 등의 친지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하면서 남긴 15편의 한글 편지글을 통해 그의 글쓰기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보고자 한다.

## 2. 추사의 편지 쓰기

### 2.1. 한문편지 쓰기

편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글쓰기이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지를 통해 소식과 안부 및 정보를 교환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신분제 사회의 속성상 그 격식이 엄격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편지 이외의 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까지도 의사소통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격식면에서도 전보다 완화되고 있으나 편지글 특유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다는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될 수 없는 편지글의 속성일진대 편지는 앞으로도 글쓰기의 주요한 형태로 존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4)</sup>

그런데 한문을 신호체계로 하는 한문편지글은 조선조라는 관련상황 아래에서 문집을 남겼던 여러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서경덕의 《화담집》<sup>5)</sup>, 조식의 《남명집》<sup>6)</sup>, 최익현의 《면암집》<sup>7)</sup> 등에도 書의 항목 밑에 여러 편의 한문편지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물론 임제의 《백호전집》<sup>8)</sup>과 대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한문편지글의 글쓰기가 의사소통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들 한문편지는 일상의 소식과 안부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유배라는 특수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내용들도 있다.

3) 오늘날에 와서는 편지 쓰기가 예전과는 달리 이메일 등의 전자편지 쓰기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편지 쓰기 형태의 변화된 모습일 뿐이다.

4) 《화담집》에도 4편의 한문편지글이 수록되어 있다.(徐完洙·徐晶洙 編, 《花潭集》, 金學主·林鍾旭 譯, 세계사, 1992.)

5) 조식의 《남명집》에는 〈본집〉에 47통, 〈보유〉에 9통이 수록되어 있어 모두 56통의 편지글이 수록되었다.(조식, 《교감국역 南冥集》,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이론과 실천, 1995.)

6) 최익현의 《면암집》에도 209통의 편지글이 수록되어 있다.(최익현, 《국역 면암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1997.)

7) 《백호전집》에는 시작품만이 수록되었다.(임제, 《譯註 白湖全集》, 창작과비평사, 1997.)

그러기에 유배를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 편지글은 발신자로서의 중요한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적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유배자로서 고독과 갈등의 심리적 내면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글쓰기를 통하여 이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있어서는 유배자의 고독과 갈등의 내면의식이 자연스럽게 전이되기에 수신자의 행동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능동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배라는 특수상황은 유배와 관련된 특수한 관련대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발신자의 독특한 심경을 수신자에게 토로하는 지시적 기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접촉시키는 친교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배자들은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위치해 있던 문인 내지는 정치인들이기에 당시의 한자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다. 추사의 한문편지도 바로 이러한 전통과 기능들의 의미가 존재하는 글쓰기이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추사의 한문편지들을 보면 일상적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도 있지만 역시 유배라는 특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들이 눈길을 끈다. 그의 편지글들은 유배적 상황이든 비유배적 상황이든 그의 자아와 세계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추사의 유배나 일상적 삶이 다른 사람들의 유배나 일상적 삶과 동일할 수 없는 것처럼 추사의 한문편지 글쓰기도 다른 사람들의 글쓰기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사의 한문편지는 일반 한문편지 글쓰기의 보편성을 넘어 특수성이 존재하는 독자적 행위로 작용한다.

추사의 《완당전집》에는 무려 243통의 한문편지글이 수록되어 있어 가히 편지글의 전범임을 보여준다.\* 이들 한문편지글들은 가족이나 형제, 조카, 제자, 친구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으며, 제주 유배시에 쓴 편지글도 80여 편 이상이 된다. 이들 한문편지글의 목록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8) 양순필 교수는 추사의 한문편지글을 권2에 48편, 권3에 35편, 권4에 115편, 권5에 43편 등 모두 241편과 권7 잡저 중에서 24편을 포함하여 265편으로 보고 있다.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p.243.) 그러나 다시 《완당전집》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중 권2와 권3의 편수는 다름이 없으나 권4와 권5는 1편씩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243편이 된다. 그러나 이 중 권5의 맨마지막에 수록된 〈與人〉은 특정한 수신자를 상징한 편지글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으며, 그 분량면에서도 일상적 편지글의 수준을 벗어난 장문의 글로서 편지글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또한 잡저의 24편을 편지글로 보기에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완당전집》에서 서독과 잡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서독은 편지글로 인식하였으나 잡저는 편지글로 인식하지 않아 별개의 글쓰기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후대의 《완당전집》을 편찬하던 사람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독과 잡저를 나누어서 보는 글쓰기나 글읽기의

〈표 1〉 추사의 한문편지 목록<sup>9)</sup>

연번	수 신 자	통 수		출 전	비 고
		전체	유배시		
1	친정에 올리다(上親庭)	1		권2	
2	사중 명희에게 주다(與舍中命喜)	5	5	권2	추사의 첫째아우
3	사계 상희에게 주다(與舍季相喜)	9	9	권2	추사의 둘째아우
4	무아에게 주다(與懋兒)	3	3	권2	추사의 양자
5	우아에게 주다(與佑兒)	1		권2	추사의 서자
6	종형 교회 씨에게 올리다(上從兄教喜氏)	2	2	권2	추사의 사촌형
7	재종형 도희 씨에게 올리다(上再從兄道喜氏)	1		권2	추사의 육촌형
8	종질 상일에게 주다(與從姪商一)	1	1	권2	관희의 아들
9	종질 상묵에게 주다(與從姪商默)	1	1	권2	교희의 아들
10	재종손 시제 형제에게 부치다(寄再從孫始濟兄弟)	1	1	권2	상묵의 아들
11	재종손 태제에게 부치다(與再從孫台濟)	3	1	권2	상일의 아들
12	외구 이희민 씨에게 올리다(上外舅李義民氏)	1		권2	
13	이공 선재에게 주다(與李公善在)	1		권2	
14	석파 홍선대원군에게 주다(與石坡興宣大院君)	7		권2	
15	민질 태호에게 주다(與閔姪台鎬)	1		권2	
16	조이당 면호에게 답하다(答趙怡堂冕鎬)	4		권2	
17	이석농 종우에게 주다(與李石農鍾愚)	1		권2	
18	윤침계 정현에게 주다(與尹樁溪定鉉)	1		권2	
19	신위당 관호에게 주다(與申威堂觀浩)	3	2	권2	
20	조운석 인영에게 주다(與趙雲石寅永)	1		권2	
21	권이재 돈인에게 주다(與權彝齋敦仁)	35	20	권3	
22	정다산 약용에게 주다(與丁茶山若鏞)	1		권4	
23	김황산 유근에게 주다(與金黃山述根)	3		권4	
24	남규재 병철에게 주다(與南圭齋秉哲)	5		권4	
25	김영초 병학에게 주다(與金穎樵炳學)	3		권4	
26	심동암 회순에게 주다(與沈桐庵熙淳)	30		권4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권7 잡지의 24편의 글들은 언뜻 제목만을 보았을 때 수신자가 있는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추사의 사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쓴 수필적 성격의 글들로서 발신자의 수신자를 향한 특별한 사연이 없는 작품들이다. 이는 서간체소설이 편지글이 아닌 것처럼 편지글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편지글이 될 수 없음과 같은 이유이다.

9) 유배시란 제주 유배시를 뜻하는 것이며, 82통이란 편지의 내용상 확실하게 제주 유배시에 쓰여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주 유배시에 쓰여진 한문편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번	수신자	통수		출전	비고
		전체	유배시		
27	김증산 상현에게 주다(與金甌山尙鉉)	1		권4	
28	장병사 인식에게 주다(與張兵使寅植)	20	19	권4	
29	이농인 재규에게 주다(與李農丈人在奎)	1		권4	
30	오진사에게 주다(與吳進士)	8	6	권4	
31	강추금 호계에 주다(與姜秋琴浩)	3		권4	
32	유절단에게 답하다(答柳節端)	1		권4	
33	황생 상에게 주다(與黃生裳)	1		권4	
34	홍소화 낙유에게 주다(與洪小華樂有)	1		권4	
35	이우선 상적에게 주다(與李藕船尙迪)	7	2	권4	
36	정유산 학연에게 주다(與丁西山學淵)	1		권4	
37	김동리 경연에게 주다(與金東籬敬淵)	3		권4	
38	오생 경석에게 주다(與吳生慶錫)	4		권4	
39	김군 석준에게 주다(與金君奭準)	4	2	권4	
40	홍군 현보에게 주다(與洪君顯普)	4		권4	
41	조눌인 광진에게 주다(與曹訥人匡振)	8		권4	
42	오대산 창렬에게 주다(與吳大山昌烈)	1	1	권4	
43	오각감 규일에게 주다(與吳閣監圭一)	2	1	권4	
44	함성중에게 주다(與咸聖中)	1		권4	
45	이여인 최상에게 주다(與李汝人最相)	1		권4	
46	양문원에게 주다(與梁文源)	2		권4	
47	이월정 장옥에게 주다(與李月汀璋煜)	1		권5	
48	권이재 돈인을 대신하여 왕맹자 희손에게 주다 (代權彝齋敦仁與汪孟慈喜孫)	1		권5	
49	백파에게 주다(與白坡)	3		권5	
50	초의에게 주다(與草衣)	38	6	권5	
51	사람에게 주다(與人)	1		권5	
계		243	82		

위 표에서 보면 추사의 한문편지는 아우나 양자, 서자, 사촌형, 육촌형, 조카 등은 물론 친우나 제자 등의 친지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초의선사에게는 무려 38통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 추사와 초의선사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귀중한 실마리가 된다. 다음으로는 권돈인에게 35통, 심화순에게 30통, 장인식에게 20통을 보내고 있어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막내아우 상희에게는 9통을 보내고 있으며, <세한도>의 주인공 이상적에게도 7통이나 보내고 있어 미루어 추사의 마음을 읽어

내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자료다.

또한 이 가운데 제주에서 유배 중에 쓰여진 한문편지는 82통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도 17명 이상이 된다. 제주 유배 중에 가장 많은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권돈인과 장인식으로 각각 20여 통으로 이들이 받은 편지 대부분이 제주 유배 중에 쓰여진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추사의 둘째 아우인 상희에게 9통 전부와 오진사와 초의 선사에게 보낸 각각의 6통 등이다.

제주 유배 중에 쓰여진 한문편지글들은 바다를 건너 제주로 들어올 때의 내용, 대정 현으로 압송될 때의 제주의 풍광에 대한 기록,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내용, 제주의 태풍에 대한 내용, 제주의 풍토와 수선화에 대한 내용, 죄인의 하루 중의 심리 등을 비롯하여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주는 사연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나의 행차는 그날 행장을 점검하여 배에 오르고 나니 해가 벌써 떠올랐었네. 그리고 배의 행로에 대해서는 북풍(北風)으로 들어갔다가 남풍(南風)으로 나오곤 하다가 동풍(東風) 또한 나고 들고 하는 데에 모두 유리하므로 이에 동풍으로 들어갔는데, 풍세(風勢)가 잇달아 순조로워서 정오(正午) 사이에 바다를 거의 삼분의 일이나 건너버렸었네.

그런데 오후에는 풍세가 꽤나 사납고 날카로워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 배가 파도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므로 금오랑(金吾郎)으로부터 이하로 우리 일행에 이르기까지 그 배에 탄 여러 초행인(初行人)들이 모두가 여기에서 현기증이 일어나 엎드러지고 낮 빛이 변하였네. 그러나 나는 다행히 현기증이 나지 않아서 진종일 뱃머리에 있으면서 혼자 밥을 먹고, 타공(舵工)·수사(水師) 등과 고락(苦樂)을 같이하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가려는 뜻이 있었다네. 그러나 생각하건데, 이 억압된 죄인이 어찌 감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실상은 오직 선왕(先王)의 명령이 미친 곳에 저 푸른 하늘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듯하였네.

석양 무렵에 곧바로 제주성(濟州城)의 화북진(禾北鎭) 아래 당도하였는데, 여기가 바로 하선(下船)하는 곳이었네.

……대정(大靜)은 주성의 서쪽으로 80리쯤의 거리에 있는데, 그 다음날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전진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날은 바로 그 달 초하루였었네. 그런데 이날은 바람이 불지 않으므로 마침내 금오랑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의 절반은 순전히 돌

길이어서 인마(人馬)가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으나, 그 길의 절반을 지난 이후로는 길이 약간 평탄하였네. 그리고 또 밀림(密林)의 그늘 속으로 가게 되어 하늘 빛이 겨우 실낱만큼이나 통하였는데, 모두가 아름다운 수목(樹木)들로서 겨울에도 새파랗게 시들지 않는 것들이었고, 간혹 모란꽃처럼 빨간 단풍송도 있었는데, 이것은 또 내지(內地)의 단풍잎과는 달리 매우 사랑스러웠으나, 정해진 일정으로 황급한 처지였으니 무슨 운취가 있었겠는가.

대체로 고을마다 성(城)의 크기는 고작 말(斗)만한 정도였네. 정군(鄭君)이 먼저 가서 군교(軍校)인 송계순(宋啓純)의 집을 얻어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집은 과연 읍(邑) 밑에서 약간 나은 집인데다 또한 꽤나 정밀하게 닦아놓았었네. 온돌방은 한 칸인데 남쪽으로 향하여 가느다란 툇마루가 있고, 동쪽으로는 작은 정주(鼎廚)가 있으며, 작은 정주의 북쪽에는 또 두 칸의 정주가 있고, 또 고사(庫舍) 한 칸이 있네. 이것은 외사(外舍)이고 또 내사(內舍)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내사는 주인에게 예전대로 들어가 거처하도록 하였네. 다만 이미 외사는 절반으로 갈라서 한계를 나누어놓아 손을 용접(容接)하기에 충분하고, 작은 정주를 장차 온돌방으로 개조한다면 손이나 하인 무리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 거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일은 변통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네……<sup>10)</sup>

이는 추사가 첫째아우 명희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다. 전반부는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오기까지의 과정이고, 중반부는 대정으로 압송되는 과정이며, 후반부는 추사가 기거할 대정고을의 규모와 집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추사가 바다를 건너 제주로 올 때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꽤나 높았던 것 같다. 그러기에 이 바람을 타고 하루 만에 제주의 화북포구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높은 파도 속에서는 배멀미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추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배멀미를 하지 않고 사공들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는 추사가 배멀미를 하지 않는 선천적인 체질이라서보다는 제주로 유배되는 죄인으로서의 정신적 긴장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에 “억압된 죄인이 어찌 감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실상은 오직 선왕(先王)의 명령이 미친 곳에 저 푸른 하늘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듯하였네.”라고 술회하고 있다.

대정으로 압송될 때의 추사의 마음은 제주의 낯선 풍광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반

10)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1, 민족문화추진회 편, 술, 1995, pp.116~118.



응한다. 하늘 빛이 실낱만큼이나 통하는 밀림의 그늘 속으로 돌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내지의 단풍잎과는 다른 모습에 정겨워하고 있으나 죄인의 몸인 만큼 여유 있게 그들을 응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가 거처할 대정고를 송계순의 가옥구조는 전통적인 제주의 집 모양을 드러낸다. 남향에 온돌방, 가느다란 뒷마루, 정주, 고사 등의 안거리집과 밖거리집의 배치는 제주만의 독특한 것이기에 추사에게는 또 하나의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

추사는 이처럼 결코 편지로서는 짧지 않은 사연들을 글쓰기로 표현한다. 제주에 도착한 유배인에게 있어 낯선 생활 모습과 정경들에 써야 할 사연들이 많음은 자연스럽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쓰기는 권돈인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에서도 읽어진다.

……내가 27일에 비로소 배에 올랐는데, 아침에는 바다가 꽤나 잔잔하더니 낮에는 바람이 사납게 불어 배가 따라서 요동치므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현기증이 나서 구르고 자빠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선두(船頭)에서 아무 탈 없이 조용하게 있었으니, 천오(天吳)·해약(海若)도 나만은 도외시해서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배를 출발하여 석양에 목적지에 당도하니, 이 같은 짧은 시간에 당도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터라, 제주(濟州) 사람들이 모두 '북쪽 배가 날아서 건너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왕령(王靈)이 돌보신 때문이었습니다. ……<sup>11)</sup>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비록 제주에 죄인으로 유배를 당한 몸이면서도 선왕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제주바다를 건널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죄인은 모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목석(木石)처럼 어둡고 완둔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하루 해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벌떼처럼 떠오르고 조수처럼 밀려와서 창자가 꺾어지려 합니다. 더구나 또 좌관법(坐觀法)만 있고 행각술(行脚術)은 없으므로 넓적다리의 살이 다 닳아 없어져서 자리를 두툼하게 깔지 않으면 편히 앉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쉼나무 위에 놓고 흙덩이를 깔고 사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방편(方便)이겠습니까. 대단히 스스로 슬프고 가련합니다. ……<sup>12)</sup>

11) 위의 책, pp.206~207.

12) 위의 책, pp.261.

이는 제주에 유배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권돈인에게 보낸 스물세 번째 편지 사연 중의 일부분이다. 하루가 1년 같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유배생활을 힘들어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위리안치된 몸으로 앉아있기만 하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처지였기에 몸의 기력이 날로 쇠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기에 대단히 슬프고 가련하다는 내면풍경을 기술하게 된다. 이러한 처참함은 피부병의 고통으로 가중됨으로써 극에 달하는 양상을 띤다.

……종제(從弟)는 예전같이 고루하고 둔한 데다가 갑자기 피풍증(皮風症)을 얻어 온 몸에 비늘처럼 반점(斑點)이 생겨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으므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전의 비 올 때에는 잘 자던 그 수면까지도 이제는 이를 수가 없으니, 이것이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sup>13)</sup>

유배인에게는 누구나 이처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 몸부림치기도 하였고, 환경이 만들어진 외적 고통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서들은 바로 글쓰기의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니 편지 글쓰기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자동화되지 않는 눈으로 대상을 읽어내고 있으니 이는 글쓰기에서도 낯선 감동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라산(漢拏山) 주위 4백 리 사이에 널려있는 아름답고 진기한 감(柑)·등(橙)·귤(橘)·주(柚) 등은 사람마다 다같이 아는 바이거니와, 이 밖의 푸른 빛이 어우러진 기목명훼(奇木名卉)들은 거개가 겨울에도 푸르른 식물(植物)로서 모두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여기에 나무하고 마소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가령 나막신 신고 지팡이를 끌고서 이곳저곳을 탐방한다면 반드시 기이한 구경거리와 들을 것들이 있으련마는 이 위리안치된 생활로 어떻게 그런 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楚) 나라 남쪽에 돌은 많고 사람이 적은 것은 예부터 그러하였거니와, 한라산의 영이하고 충만한 기운 또한 초목에만 모였을 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기운이 물(物)에만 모이고 사람에게에는 모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수선화(水仙花)는 과연 천하에 큰 구경거리입니다. 강절(江浙) 이남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에는 촌리(村里)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도 이 수선화가 없는

13) 위의 책, pp.155~156.

곳이 없는데, 화품(花品)이 대단히 커서 한 송이가 많게는 십수화(十數花) 팔구악(八九莠) 오륙악(五六莠)에 이르되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또는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이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문 동쪽·서쪽이 모두 그러하건만, 돌아보건대 굴 속에 처박힌 초췌한 이 몸이야 어떻게 이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거니와, 눈을 뜨면 눈에 가득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눈을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sup>14)</sup>

권돈인에게 보낸 다섯 번째 편지의 일부분이다. 제주도 일원에 널려있는 감귤과 기이한 나무들과 꽃들은 추사에게는 낯선 대상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별목하거나 마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하지 않는 풍습들도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마을마다 질펀하게 자라는 수선화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선화를 시적 대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시인이 된다.

한 점의 겨울 마음 송이송이 둥글어라	點冬心朵朵圓
그윽하고 담담하고 냉철하고 빼어났네	品於幽澹冷雋邊
매화가 높다지만 뜨락을 못 면했는데	梅高猶未離庭 <sup>14)</sup>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을 보겠구려	清水眞看解脫仙 <sup>15)</sup>

다음은 추사가 제주에 유배온 뒤에 초의선사에게 보낸 열다섯 번째 편지의 일부분이다.

뱃머리에서 이별을 나눴으니, 모르괘라 해인(海印)이 빛을 발할 적에도 이와 같은 한 경지가 있었는지요. 의당 터력이 큰 바다를 삼키고 개자가 수미(須彌)를 받아들여 막힘 없는 원융(圓融)으로써 녹여내리라 생각하는데 사는 또한 어떻게 이르는지요?

바다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미 백일이 가까운데 풍신(風信)이 좋지 못하여 세체(世諦)상의 성문(聲聞)과 영향(影響)이 마침내 이렇게 막히고 끊어졌더니 문득 선함(禪域)을 멀리 보내주어 단포(團蒲)가 정길(淨吉)함을 알게 되었으니 또한 족히 흐뭇하여 가슴이

14) 위의 책, p.209.

15) 김정희, 《국역완당전집》3, 민족문화추진회편, 서울, 1996, p.246.

트시오그려.

누상(累狀)은 입을 벌리면 곧 먹고 눈을 감으면 곧 자니 사의 생활도 또한 이에 벗어 나지 않는 건지요? 사의 자비로서 마땅히 마음이 쓰이겠지만 지나친 염려는 말아도 될 거외다.

허치(許痴)는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무척 기다려지는군요. 봄 뒤의 기약은 벌써부터 발돋움하고 바라는 바이며 우선 허치로 하여금 하나의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해 주오. 곧 법문(法門)의 일중(一重) 공안(公案)이니 그리 아오.

선달도 다 가게 되니 오직 길상 여의(吉祥如意)를 바라며 불선.

두 가지 장(醬)은 다 받았으니 감사하며 생강꾸러미에 들었다는 옹이(熊耳)는 오유(烏有)로 되어버렸으니 먼 길이라 어안(魚雁)의 와전됨이 이와 같소그려.<sup>16)</sup>

추사가 제주에 들어온 지 백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낸 편지다. 추사가 제주에 도착한 것이 1840년(헌종 9) 9월 27일이므로 적어도 이 편지는 이듬해 1월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직 유배생활에 적응되지 않는 상태의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자'는 유배인의 심리상황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허소치와의 관계라든지 추신의 형식을 통해 생강꾸러미 속에 보낸 귀한 물건이 행방불명되고 있는 당시 상황이 잘 묘사되었다.

그런가하면 자신이 유배되었음에도 유배 전이나 변함없이 행동하는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주는데, 그는 다음의 편지를 통해서 왜 세한도를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솔하게 쓰고 있다.

……더구나 온 세상의 풍조는 오직 권세·이익만을 붙쫓는데 이와 같이 심력을 허비하고도 권세·이익에 돌리지 아니 하고 마침내 해외의 한 초췌 고고(枯槁)한 사람에게 돌리기를 마치 세상이 권세·이익에 붙쫓는 것과 같이 하니 어인 일인지요.

태사공(太史公)이 말하기를 “권세·이익으로 어울리는 자는 권세나 이익이 다 떨어지면 사귀이 성글어진다.”하였는데 그대 역시 세상의 풍조 속에 한 사람으로서 초연히 스스로 권세·이익의 테두리 밖에 벗어나서 권세·이익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인지요.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인지요.

공자(孔子)의 말씀에 “세한을 만난 연후에야 송백(松柏)의 후조(後凋)를 알게 된다.”

16) 김정희, 《국역완당전집》2, 민족문화추진회편, 서울, 1996, p.176.

라 하였는데 송백은 바로 사시를 일관하여 사들지 않는 것으로서 세한 이전에도 하나의 송백이고 세한 이후에도 하나의 송백인데 성인은 특히 세한 이후를 들어 칭하지 않았소.  
.....<sup>17</sup>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이를 초연해하고 있으니 유배 상황에 있는 추사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추사가 유배를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권세와 이익을 좇는 무리들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상적의 지조 있는 행동은 절해고도에 유배된 추사에게 더 없는 고마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 2.2. 한글편지 쓰기

추사가 남긴 한글편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34통이나 된다.<sup>18)</sup> 현존하는 34통의 편지 가운데에는 제주에서 9년간의 유배생활 중 부인 예안 이씨에게 보낸 13통과 며느리에게 보낸 2통을 포함하여 모두 15통이 있는데, 이를 표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추사의 제주 유배시 쓴 한글편지 목록

연번	수신자	발신날자	비고
1	부인 예안 이씨	1840. 9. 27~10. 5. 사이	추사 55세. 제20신
2	부인 예안 이씨	1841. 윤 3월초	추사 56세. 제21신
3	부인 예안 이씨	1841. 윤3월 20일	추사 56세. 제22신
4	부인 예안 이씨	1841. 4. 20	추사 56세. 제23신
5	부인 예안 이씨	1841. 6. 22	추사 56세. 제24신
6	부인 예안 이씨	1841. 7. 12	추사 56세. 제25신
7	부인 예안 이씨	1841. 10. 1	추사 56세. 제26신
8	부인 예안 이씨	1842. 1. 10	추사 57세. 제27신
9	부인 예안 이씨	1842. 3. 4	추사 57세. 제28신
10	부인 예안 이씨	1842. 4. 9	추사 57세. 제29신
11	부인 예안 이씨	1842. 10. 3	추사 57세. 제30신
12	부인 예안 이씨	1842. 11. 14	추사 57세. 제31신
13	부인 예안 이씨	1842. 11. 18	추사 57세. 제32신
14	예산 며느리	1843. 10. 10	추사 58세. 제33신
15	예산 며느리	1844. 3. 6	추사 59세. 제34신

17) 위의 책, pp.87.

18) 金一棍, 《諺簡의 研究》(三訂版), 建國大學校出版部, 1991, pp.275~276. 이하 추사의 한글편지의 순서는 이 책의 차례를 따른다. 또한 보유 6편이 따로 전하는데 이는 追記나 挾紙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들 편지는 추사가 제주에 유배 온 당해년도인 55세로부터 59세 사이인 5년 동안에 쓰여진 것들이다. 마지막 2통이 며느리를 수신자로 함은 예안 이씨가 1842년 11월 13일 세상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부인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추사가 맨처음 한글편지를 보낸 것은 경상감사였던 아버지 김노경이 있는 대구감영에서 서울 장동 본가에 있는 부인 예안 이씨에게 보내는 데서 비롯된다. 이때 그의 나이 33세 때이다. 그는 계속해서 부인에게 한글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장동 본가에서 대구에 내려가 있는 부인에게 10통, 장동 본가에서 온양 친가에 내려가 있는 부인에게 3통, 평양감사로 있던 김노경의 평양감영에서 장동 본가 부인에게 4통, 고금도에 유배된 아버지 곁에서 장동 본가 부인에게 1통 등 모두 18통이다.<sup>19)</sup> 따라서 추사는 당대의 어느 문인보다도 많은 한글편지를 쓰고 있다.

추사가 제주에서 쓴 15통의 편지들을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추사의 유배시 쓴 한글편지 내용

건명	편 지 내 용
제20신	· 시후, 가족 안부 인사, 아내 걱정, 일가 걱정, 바다를 건너는 경험, 대정 배소 도착, 거하는 집의 규모, 생복이 소산이고 소고기는 귀함, 심리 불안
제21신	· 편지 받음, 안부 인사, 아내 걱정, 일가 걱정, 제사 걱정, 심리 불안, 부쳐온 음식물 이야기, 제주에는 시장이 없음, 의복 받음
제22신	· 편지 받음, 안부 인사, 자기 안부, 옷과 음식물 받음, 하인 이야기, 체념, 하인 한의 보냄, 며느리 안부, 끝인사
제23신	· 편지 받음, 안부 인사, 보내준 음식물 변미하였음, 옷 이야기, 회갑의 축의금, 끝인사
제24신	· 안부 인사, 심리 불안, 학질로 고생, 음식물을 얻어 보내기 바람, 끝인사
제25신	· 편지 받음, 안부 인사, 학질 병고, 음식물을 얻어 보내기 바람
제26신	· 편지 받음, 안부 인사, 심리 불안, 자기 안부, 음식물 얻어 보내기 바람, 의복 이야기, 끝인사
제27신	· 안부 인사, 양자 들임, 아내 요통 걱정, 자기 안부, 음식물 받음, 의복 받음
제28신	· 편지 받음, 아내 안부 인사, 양자에 대한 칭찬, 자기 안부, 음식물 받음, 며느리 들 일 일, 끝인사
제29신	· 편지 받음, 첫째아우 명희의 무남독녀의 요절에 비통함, 불안한 마음, 아내 안부, 며느리 들임에 감사, 자기 안부, 끝인사
제30신	· 안부 인사, 소양증의 고통, 음식과 의복 받음, 끝인사
제31신	· 안부 인사, 소양증의 고통, 아내 병환 걱정, 끝인사
제32신	· 편지 받음, 아내 병환 걱정, 자기 안부, 끝인사
제33신	· 곤전(坤殿) 승하 소식에 비통함, 안부 인사, 자기 안부
제34신	· 아내 상(喪)의 비통함, 손자의 천은(天恩) 작명, 며느리 안부, 끝인사

19) 위의 책, pp.275~276.

편지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일반적인 편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 가족이나 아내의 안부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안부나 끝인사 등의 일상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사안에 따라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오기까지의 해로 경험이나 대정 배소에 도착한 내용, 유배 중의 불안한 심리 상황이나 소양증이나 학질 등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이야기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음식물이나 의복을 보내 주기를 바라거나 보내 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외에도 첫째아우 명희의 무남독녀가 35세로 요절한 데 대한 비통함, 곤전 승하 소식을 접한 비통함, 아내의 상한 당한 비통함, 며느리나 손자를 보는 기쁨들도 특이한 것들이다.

### 3. 제주 유배 한글편지 쓰기과 읽기

#### 3.1. 발신자

영조가 끔찍히 총애하던 딸 和順翁主를 추사의 증조 金漢蓋에게 출가시킴으로써 김한신은 月城尉가 되고 그 집은 월성위궁이 된다. 추사는 바로 이 월성위궁에서 김노경의 장남으로 태어나 곧 같은 집에 사는 백부 예조참판 김노영에게로 출계하고 월성위의 奉祀孫이 된다. 5세 무렵 '立春大吉'이란 글씨를 대문에 써 붙였는데 채제공·박제가 등이 그 글씨를 보고 탄복했던 추사였다. 24세 때에는 아버지 김노경이 겨울에 동지겸사은사의 부사로 가게 됨에 따라 아버지를 수행하여 청 나라에 가서는 翁方綱·阮元과 같은 청의 석학들을 만남으로써 실학과 경학에 눈뜨는 귀중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하여 純元王后의 수렴청정기간 대권을 잡고 있던 안동김씨 세력은 그들의 정적 추사 일가를 공격한다. 10년 전 윤상도 부자가 申緯 등을 탄핵하면서 왕세자를 간접 비난하는 데서 기인한 尹尙度獄事를 재론하여 그 상소문의 기안자를 추사라 함으로써 추사 일가를 없애려 한다. 간신히 당시 우의정이던 친우 조인영의 도움으로 죽음만을 면할 수 있었으나 1840년 9월 55세이던 추사는 최악의 유형의 땅 제주로 귀양을 수밖에 없었다.

추사는 작으만치 9년 동안 절해고도에서 고독한 유배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한 고독한 삶은 <세한도>를 창작해내고 추사체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심리적인 갈등은 몹시 컸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변방에서 바깥세상과의 통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며, 그 수단 하나가 편지 쓰기이다. 그

는 편지를 통해 폐쇄적인 자기가 처한 공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전편 편지 부치온 것이 인편의 훈 가지로 갈 듯호으며, 그 스이 시 본관(新本官) 오는 편의 영뉴(永柔)의 편지 보오니, 이 스이 년호야 병환을 제지 못호오시고 일야진퇴(日夜進退)호시나 보오니 밧서 여러 달을 미류(彌留)호오며 근력 범벽이 오작호와 겨오시개습. 우룩정(麴鹿錠)을 즈시나 보오니 그 약의나 썩히 동덩(動靜)이 겨시올지, 원외(遠外)서 심너초절호옵기 형용 못호개습. 나는 전편 모냥이오며 그져 소양(搔痒)으로 못 견디개습. 감쇠을 아니 보니올 길 업서 이리 보너오나 그 가는 모양 춤춤호오니 깃등의 썩 일층 심회를 덩치 못호개습. 급히 써나보내기 다른 스연 길개 못호옵.(제32신)

이 편지는 부인 예안이씨가 세상을 떠나기 5일 전에 쓴 것이다. 추사는 천리 밖에서 아내의 병세를 걱정하며 심려초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추사의 이러한 걱정에도 아랑곳없이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 부고를 받은 것이 이듬해 1843년 정월 15일이었으니 거의 두 달이 지나서였다. 다음은 이 때의 슬픔과 놀라움을 적은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의 일부분이다.

……어허! 어허! 나는 행양(桁楊)이 앞에 있고 영해(嶺海)가 뒤에 따를 적에도 일찌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한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열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자도 길이 없으니 이는 어인 까닭이지요.

어허! 어허!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부인만은 죽어가서는 안 될 처지가 아니겠소.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될 처지인데도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극한 슬픔을 머금고 더 없는 원한을 품어서 장차 뵈으면 무지개가 되고 맷히면 우박이 되어 족히 부자(夫子)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행양보다 영해보다 더욱 더 심했던 게 아니겠소.

어허! 어허! 삼십년 동안 그 효와 그 덕은 종당(宗黨)이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붕구(朋舊)와 외인(外人)들까지도 다 느껴 칭송하지 않는 자 없었소. 그렇지만 이는 인도상당연한 일이라 하여 부인은 즐겨 받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었소. 그러나 나 자신은 잊을 수 있겠소.

예전에 나는 회룡조로 말하기를 “부인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소.”라 했더니, 부인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크게 놀라 곧장 귀를 가리고



멀리 달아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요. 이는 진실로 세속의 부녀들이 크게 꺼리는 대목이지만 그 실상은 따져보면 이와 같아서 내 말이 다 회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소.

지금 끝내 부인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뻗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푸른 바다와 같이 긴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이외다.<sup>20)</sup>

이러한 상황의 추사이고 보면 고통이 수반되는 고독한 유배의 길에서 그로서는 외부세계와의 대화 통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며 그 표현 매개체가 바로 편지로 나타남은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 3.2. 수신자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하는 하는 동안 편지의 수신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몇몇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유배인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편지를 주고받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사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권돈인·조인영·신관호·장인식·강호·김석준·오창렬·오규일·백파대사·초의선사·이상적 등은 물론 김명희·김상희·김교회·김상일·김상묵·무아 등의 형제간이나 조카 및 부인이나 며느리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부인과 며느리이다. 부인이나 며느리는 당시의 추사로서는 가장 자기의 진솔한 얘기들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수신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수신자에게 토로할 수 있는 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장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토로하기에는 적합했지만 좀더 넓은 세계와 관련된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적합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추사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문제인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예안 이씨는 첫째 부인 한산 이씨가 추사 나이 21세 때 사망함으로써 새로이 맞이한 둘째 부인이다. 그런 부인에게 32통의 한글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제주 유배시의 편

20)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2, 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1995, p.309.

지는 13통이다. 수신자인 예안 이씨는 추사에게 의복과 음식물을 만들어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사를 대신해서 봉제사를 떠받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아내를 추사는 더없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명월의 부친 강경(江景)이 비(船)가 이 달 초팔(初八)의야 드러와서 보내오신 찬물(饌物)은 츠시 밧즈와스오나 자연(自然)이 변미(變味)야 엇지 아니호야개습. 그러호되 못 먹지 아니호개 되오니 형(幸)이옵. 인절미는 모도 석어버려습. 그는 홀 길이 엷는 거시니 후(後)의는 부질엷는 것 슈고 드러 포진천물(暴殄天物)을 어이 호올가 보옵. 장(醬)으로 만근 거슨 그리 관겨치 아니호나, 외장과(醬果)는 관겨치 아니호고 무우장과는 또 변미호야습. 첫무우는 조곰 식여시나 먹개습. 겨울의 비슨 옷슬 울너 보내오니 진작 또 고쳐 보내셔야 되개습. 여긔는 겨울 거슬 여름의 유의(留意)호여야 되개습.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지(明紬) 바지는 보내지 마옵. 여긔 토쥬(吐袖) 바지 호나 잇는 것슨 조곰 득겅기 엷지 아니호고 아직 두어습. 두루막이나 둘 다 고쳐 보내옵. 무명 두루막이가 희롭지 아니호오니商量(商量)호야 호옵. 샤미 잇는 두루막이는 나려온 것시 그디로 다 이시니 다시 호여 보내지 마옵. 여긔셔 종 ~ 잇는 거시 아니오니 여럿 부질엷습. 차동(車洞) 회갑(回甲)의 옷은 엇지호야 보내옵. 막연이 생각뿐이오니 덩니(情理) 견디기 어렵습. 회갑날 도반(朝飯)이나 호여 즈습개 돈냥을 또 어더 보나야야 홀 거시니 엇지 요랑호옵. 다쇼간(多少間) 의논들 호야 호개 호옵. 인편 총 ~ 대강 덕습.(제23신)

예안 이씨가 죽고나자 며느리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손자를 순산함에 天(天)이라 작명하여 보내면서 잘 양육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그스이 순산(順産)을 호고 아들을 나하짜 호니, 종손(宗孫)의 경스 우리집의 처음으로 보는 痘종(祖宗)이 권우(眷佑)호신 듯. 네 몸의 와서 저리 유공유복(有功有福)호야 종석(宗祐)의 광채(光彩)가 되니 문운(門運)이 초초 열너 가는 듯. 원외(遠外)의셔 더욱 경형(慶幸)호고 오히려 죽시 보지 못호는 것슨 궁궁호나 엇지호리. 아히 싱긴 거시 비범호다 호니 모옵의 더고나 구지 든 ~ 호다. 아히 나기를 납월(臘月) 그믐날이라 호니 그날이 천은(天恩) 상길일(上吉日)이니, 그도 우연치 아니 호야 싱가포르(生家) 선친(先親)이 천은일(天恩日) 나오셔 쇼명(小名)가지 은츠(恩字)을 너허 지어 겨오시더니, 이 아히가 또 이러호니 아니 괴이(奇異) 신통(神通)호은 일이나. 일흠을 천은(天恩)이라 지어보내니 그리 불러라.……(제34신)

### 3.3. 메시지

추사가 보낸 편지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그가 유배인의 몸이었기에 특별한 이야기를 할 입장은 못 되었다. 그리고 부인과 며느리를 수신자로 한정된 입장에서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일상적 가사와 관련된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서 부인과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상대방 안부, 일가 걱정, 자기 안부, 받은 음식물이나 의복에 대한 내용, 끝인사'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 특별한 것으로는 바다를 건너올 때의 경험, 손자 이야기, 아내 죽음, 양자 이야기, 질병 이야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질병 이야기는 상대방의 안부나 자기 안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임에도 아내를 지극히 존경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내를 지칭하는 3인칭을 '계서'라고 호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존대보조어간 '시'의 사용이나 '습, 읍'과 같은 객체존대보조어간을 쓰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추사가 해남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때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이다.

경득(庚得) 편(便)과 경호(奴名)편의 년(連) 호야 덕샤오시니 보옵고 든·호오나, 이일학(二日學)으로 미령(糜寧)이 지낸신다 호오나 놀납고 넘려 측량 업습. 그져 학질(疴疾)이라도 계서 근력(筋力)의 견디기 어려울디 호물며 이증(此症)은 졸연 이각(離却)이 어렵스올 거시오니 엇지 이긱여 갈가 보옵.……(제30신)

……나는 천니(千里)을 무스(無事)이 오와 또 천니 대희(大海)을 거월(去月) 이십 칠일의 하로니의 슈이 건너오니 무비왕녕(無非王靈)이오나, 선둥(船中) 샤롬 다 슈질(水疾) 호야 정신을 일허 종일(終日)을 굴며 지내온디, 나 혼자 슈질도 아니 호고 선상(船上)의 종일 당풍(當風) 호야 안져 의견(依前)이 밥도 잘 먹고, 그 전의 년(連) 호야 물마리를 먹고 오더니, 선상의셔 된(되)인 밥을 평시와 갖치 먹스오니 그도 아니 고이호옵.……(제20신)

추사는 현종 6년 9월 2일에 제주도 유배명령을 받고 출발하여 일단 해남으로 가서 27일에, 배로 다시 출발하여 그 날 하루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위 편지는 바로 배를 타고 제주로 건너올 때의 상황을 부인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첫째아우 명희와 권돈인에게 보낸 한문편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는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식사도 다름없이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문편지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그의 편지에는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에 관한 흥미있는 사실들도 적혀 있다. 제주도에에는 당시에 김치가 없었다거나(제21신, 제25신, 제27신), 산나물을 잘 먹지 않았다거나(제21신), 민어·북어·명태 등이 없었다거나(제24신, 보유 제6신), 백자·호도·겨자가 없었다거나(제24신, 제25신), 저자와 장이 없었다(제21신) 등의 제주의 민속적 내용들도 기술되었다.<sup>21)</sup>

……서울서 보낸 침채(沈菜)는 원약 염(鹽)을 과(過)히 혼거시라 변미(變味)는 해야 시나 그려도 침채의 주린 입이라 견디여 먹어습. …(중략)… 산채(山菜)는 더러 잇나 보더 여긔 샤롬은 순전(純全) 먹지 아니 호오니 고이흔 풍속(風俗)이옵. 고소리 쇼로장이와 두릅은 잇기 혹 어더먹습. 도모지 저지(市)와 장(場)이 업스오니 범(凡)거시 미미(賣買)가 업스오니 이셔도 모로고 어더 먹기 어렵습. ……(제21신)

……빅자(栢子)와 호도(胡桃)가 여긔는 업는 거시오니 어더 보내개 호옵고, 죠흔 곳감 이 거긔셔는 잇기 어렵지 아니 호을 듯호오니 비편의 스오점 어더 보내야 주옵. 히쇼(咳嗽)의는 미양(每樣) 구급(救急)이 되기 이리 괴별호으며, 올회도 짐치와 첫무우해야 부치개 호옵. 짐치는 그리 아니면 삼동(三冬)을 어더 먹지 못호오니 아조 보낼 그릇식 담아 보내개 호옵더니 썬나면 또 변호옵.……(제25신)

……침치도 그리 변미가 되지(안)호와, 침치을 순전 못어더 먹더니 이리 먹스오니, 먹기는 먹으나 그져 과(過)흔 듯 호옵.……(제27신)

### 3.4. 관련상황

추사가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제주에서의 유배상황이다. 그러기에 그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편지마다 가감없이 표현되었는데, 두서를 정하지 못했다든지(제20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든지(제21신), 되어가는 대로 지내겠다는 체념의 상황이든지(제22신), 소식도 알 길 없고 한 세상이 아니라든지(제24신), 병으로 고생한다는 상황(제24신, 제25신, 제26신, 제30신, 제32신) 등으로 기술되었다. 다음은 유배인으로서 고통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대목의 일부분이다.

21) 梁淳秘, 앞의 책, pp.269~271.

……강동(江東)의 정니을 심각호오면 살이 어이고 뼈가 사라지는 듯 엇더하다 호을  
 길이 업습. 이런 촌경 아니라도 이희에 오면 그 쇠편(衰敗)호 모양 오작지 아니 호되, 또  
 역니지척(逆理之憾)을 보고 엇지 견디여 나옵는고, 그 쏘 하나이 무어시 과호야 저 지  
 경을 보오니 천니인니(天理人理)가 엇지 이디도록 호온고 아모려도 알 길이 업습. 쥬근  
 아히는 삼십 오년 인성이 촌혹 . . 호오니 오히려 제 신세의는 후련홀가 호오나, 그러도  
 하 불상호 인성이기 제 아비 만경(晩境)의 이척(罹憾)이나 아니 식일가 호엿더니, 이  
 씨의 이 모양을 호야 뵈니 도물(造物)이 다 그리 만들고 돕는 듯호야 어히업시 말이 나  
 지 아니 호옵.……(제29신)

동생 명희의 무남독녀가 35세에 요절했음을 알고 동생의 신변을 걱정한 편지다. 추  
 사가에 닥친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그는 門運으로 여기고 있으며, 인력으로 어  
 찌할 수 없다고 부인을 달래고 있다.

### 3.5. 접촉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글이다. 그 접촉의 매개체로서는 보  
 통 하인들이 이용되었지만 특별한 인편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편지 속에 등장하는 하  
 인인 ‘한희(제24신, 제29신), 경득(제30신, 제31신), 경호(제30신), 갑쇠(제31신)’ 등이  
 일차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양재완(제21신, 제22신, 제23신), 이응경(제26신), 정손(제26  
 신), 신관사또(제32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지  
 기도 하였다.

한희 올나간 후 삼하(三夏)가 다 지나되(제24신)

한희(奴名) 회편 답서는 진즉 드러가습던가 호오며(제29신)

경득(庚得) 편(便)과 경호(奴名)편의 년(連) 호야 덕사오시니 보옵고(제30신)

경득(庚得) 회편은 어너 씨 드러갓습.(제31신)

세후(歲後) 처음으로 양재완 편의 글월 보옵고 그 후 또 인편(人便)의 년(連)호와  
 글월보오니(제21신)

양(梁)지완 편(便)의 편지는 이편과 겨워 가치 드러가올 듯호오며(제22신)

양(梁)지완 박(朴)한희 편(便)의 편지는 응당(應當) 그스이 보와 겨오실 듯호오나(제

23신)

니응경(李應慶) 회편 답서(答書)는 그사이 응당 보오신 듯호오며, 정손(鄭孫) 오읍 난디 글월 보옵고(제26신)

전편 편지 부치온 것이 인편의 훈 가지로 갈 듯호오며, 그 스이 시 본관(新本官) 오논 편 의 영뉴(永柔)의 편지 보오니(제32신)

### 3.6. 신호체계

추사가 한문편지 외에 34통의 편지를 남기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자의 일면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당시 양반 사대부로서 한글을 실생활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터인데도 그는 적잖은 수의 한글편지를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사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곧잘 한문서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의 한글편지를 통해서 보면 한글서체에까지도 확장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사의 한글편지는 기본적으로 추사의 사고체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가 이러한 사고를 갖기까지는 추사가의 한글편지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미 추사의 조모 윤씨가 쓴 한글 편지 6통, 추사의 자당 유씨가 쓴 한글편지 3통,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이 쓴 한글편지 11통, 추사의 아우 상희가 쓴 한글편지 2통 등 추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있어 여성은 물론 남성들까지도 한글편지를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추사의 실학정신은 외부로부터 영향받은 사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의 집안 내부에서부터도 싹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추사에게 9년 동안의 제주 유배생활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절해고도인 제주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편지라는 시문의 형태로 나타났다. 아내나 며느리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한 한글편지가 수단이 되었다면 그 밖의 친지들에게는 한문편지를 사용하였다. 추사는 이 한글편지들을 통하여 가장 일상적 신변이야기들을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심리적 갈등이나 기본적 욕구들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존하는 34통의 한글편지들은 《완당전집》에 수록된 그 어떤 자료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추사를 이해하는 데는 더 없이 소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제주에서 부인과 며느리에게 보낸 15통의 한글편지는 제주에서의 유배 생활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유배문학 세계를 고찰하는 기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한글편지들은 당대의 양반 사대부인 추사가 한글을 실생활에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의 실사구시 정신이 이론과 실체가 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 金正喜, 《秋史集》, 崔完秀 譯, 玄岩社, 1976.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1995.  
徐完洙·徐晶洙 編, 《花潭集》, 金學主·林鍾旭 譯, 세계사, 1992.  
임 제, 《白湖全集》, 창작과비평사, 1997.  
鄭後洙 譯, 《秋史 金正喜 詩 全集》, 풀빛, 1999.  
조 식, 《교감국역 南冥集》,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이론과 실천, 1995.  
최익현, 《국역 면암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1997.  
金一根, 《諺簡의 研究》(三訂版), 建國大學校出版部, 1991  
梁淳琚,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